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구이(九二) '상전' '이끌어서 회복한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 잃지 않는다'에서 '또한'이란 윗말을 이어서 초구가 잃음이 없을 뿐 아니라 둘째 효 역시 잃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릇 회복한다고 한 경우는 모두 잃은 뒤에 회복하는 것이니 송(訟)괘 구사(九四)와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잃은 것이 없는데도 회복한다고 한 것은 음에 의해 저지되어 잃게 되지나 않을까 의심하므로, 초구에서는 '도에 따라'라고 하고 구이 '상전'에서는 '본디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음에 의해 저지되기는 하지만 모두 건의됨됨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구(上九)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치니 이는 덕을 숭상하여 가득 찼기 때문이니, 지어미가 바르더라도 위태롭다. 달이 거의 보름에 가까우니 군자가가면 흉하다[旣雨旣處, 尙德載, 婦貞厲. 月幾望, 君子征凶].' 상전(象傳).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친다'는 것은 덕이 쌓여 가득하다는 것이다. '군자가 가면 흉하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旣雨旣處', 德積載也. '君子征凶', 有所疑也).

내가 생각건대, '달이 거의 보름에 가깝다[幾望]'는 음(陰)이 장성하여 양에 대적하는 때이므로 '의심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의심'이란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존재한다. 만일 이미 벌어졌다면 의심할 것이 없다. 오징은 '맹자'와 '순자'의 구절에 '기(幾)'가 '기(旣)'로 되어 있고, 또 '좌전(左傳)'의 "어찌 다 점령할 수 있겠는가[庸可幾乎?]"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기(幾)'와'기(旣)'가 고자에서는 통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효의 윗 글에 이미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치니'라는 말이 있으므로 동일한 효 가운데 다시 통용되는 글자를 사용하여 '기(幾)'를 '기(旣)'로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물며 소축은 하나인 음이 다섯 양을 저지하고 상구가 괘의 끝에 자리하고 있어 저지함이 극에 이르러 완성되는 상(象)이 있지만 부드럽고 겸손하여 저지하되 온화하게 하니 가득 차서 보름을 넘긴 달이 될 수는 없음에랴!

오징은 또 윗글 '덕을 숭상하다[尙德]'의 '덕'자를 경방(京房) 등의 저작에 근거해서 '득(得)이라 하였다. 오징은 경전을 해석하면서 신기하게 보이기를 애써 선유들과 다르게 해석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널리 잡서를 인용하여 경문의 본래 글자를 고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준(屯) 구삼의 '녹(鹿)'을 '녹(麓)'으로, '기(幾)'를 '기(機)'로, 송(訟) 상구의 '치(褫)'를 '체(攄)'로 고치고, 이 효에서는 '기(幾)'를 '기(旣)'로 고친 것 등은 오히려 본래의 글자를 남겨두고 다만 '어떤 글자는 어떤 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여 선유(先儒)들의 경문 해석 용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師)의 '단전(彖傳)' '장인(丈人)'을 '대인(大人)'으로, 이 효의 '상덕(尙德)'을 '상득(尙得)'으로 한 것 등은 그 본래의 글자를 제거하고 직접 본문을 고쳐 버렸다.

한대(漢代) 유학자들이 경전을 해석하면서 문리(文理)에 의심이 가면 '어떤 글자는 어떤 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의미를 소통시켰다. 이는 그 서적이 진화(秦禍)를 거친 뒤에 나와 문장의 의미 또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본래의 글자를 제거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였는데, 이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경전은 진화를 겪지 않아 오류가 많지 않고, '즉록(卽鹿)'·'기망(幾望)' 등의 경우는 선성(先聖)께서 '상전'에 해석한 의미가 가장 명백하며, 그밖의 것들도 모두 문맥이 부드러워 의심할 것이 없다. 만약 본래의 경전을 믿지 않고 도리어 후인들이 덧붙인 책을 이용하여 모두 고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장인'의 장을 '대'로, '상덕'의 덕을 '득'으로 고친 것이 자하(子夏)·경방(京房) 등의 전(傳)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이것을 근거로 가벼이 경문을 고칠 수 있겠는가?

자하·경방이 역학(易學)의 전수에 관련된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자하는 자식의 상에 곡을 하다가 실명(失明)'하였으니 이는 삶과 죽음, 처음과 마침의 도리를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다. 경방이 화를 입은 것은 더욱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 두 사람에게 비록 본인이 저술한 책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고 경전을 의심할 수 없거늘, 하물며 그들의 설이라 전하는 것들이 후인들의 손에서 나온 것임에랴! 비록 근거할 만한 증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의리상에서 우열을 가려 판단해야 한다.

'장인'을 '대인'으로 고친 것은 성인께서 군사를 신중하게 운용하며 후인들을 염려하는 의도를 크게 잃은 것이다. '치(褫)'를 '체(攄)'로 본 것은 끝내는 흉하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기(幾)'를 '기(旣)'로 본 것은 앞으로 융성하여 의심받게 된다는 상(象)을 보이지 못한다. '상득(尙得)'의 설은 더욱 견강부회(牽强附會)이어서 통하지 않는다. 구삼이 육사를 얻어 상구의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효의 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경문에 따라 그 책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야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근거로 경문을 어지럽혀서야 되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7)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5편 공야장(公冶長)

〈제22장〉

공자가 말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남의 지나간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원망할 일도 드물었다."

[원문]

子曰 伯夷叔齊는 不念舊惡이라 怨是用希니라.

[자왈 백이숙제는 불염구악이라 원시용희니라.]

[이해]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고죽군[孤竹君]의 두 왕자인데 후계자 자리를 서로 사양하다 주나라로 함께 피해와 있었다. 뒷날 주무왕[周武王]이 은의 폭군 주왕을 토벌하려할 때 말리다 듣지 않자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었다고 전한다. 남의 구악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넓은 도량을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사람한테는 굳이 미움을 묵혀두지 않기 때문에 원망할일 또한 드물었다는 말이다.

제2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 누가 미생고[微生高]를 정직하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빌리러오니 그것을 이웃집에서 얻어다 빌려주었다.

[원문]

子曰 孰謂微生高를 直인가 或이 乞醯焉커늘 乞齊其鄰而與之인져.

[자왈 숙위미생고를 직인가 혹이 걸혜언커늘 걸제기린이여지인져.]

[이해]

미생은 복성. 고는 이름. 노나라 사람이다. 자기에게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인데 남의 물건을 빌어다가 자기가 생색을 내든지 호감을 사려고 아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24장

공자가 말하였다. "말을 교묘히 둘러대고 낯 빛을 좋은 듯이 꾸미며.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공손이 구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하였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을 가슴 속에 감추고 사람과 절친한 체 교제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원문]

子曰 巧言令色足恭을 左丘明이 恥之하니 丘亦恥之하노라 匿怨而友其人을 左丘明이 恥之하니 丘亦恥之하노라.

[자왈 교언영색족공을 좌구명이 치지하니 구역치지하노라 익원이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하니 구역치지하노라.]

[이해]

여기서의 좌구명[左丘明]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편술한 좌구명과는 다른 공자 이전의 유명 인물 이라는 정자[程子]의 견해도 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속 다르고 겉 다른 태도를 갖지 말고 항상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자세로 임해 추호라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낄 행실을 짓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이다.

제25장

안연[顏淵]과 계로[季路]가 공자[孔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가 말하였다. "어디 너희들의 포부를 각각 한번 말해보지 않겠느냐?"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가지고 싶은 수레와 말. 가벼운 가죽겉옷을 입게 되어서 벗들과 더불어 같이 쓰다가 그것들이 못쓰게 헐어버려도 섭섭함이 없으면 싶습니다."안연[顏淵]이 말하였다. "자신의 좋은 점을 자랑함이 없고 남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공자가 말하였다. "늙은이들을 편안케 해주고 벗들에게 신의를 가지게 하여 젊은이들이 따라 배우게 하고 싶구나."

[원문]

顏淵季路시러니 子曰 盍各言爾志러라 子路曰 願車馬와 衣輕裘를 與朋友共하여 敝之而無憾하나이다 顏淵曰 願無伐善하며 無施勞하나이다 子路曰 願聞子之志하나이다 子曰 耆老安之하며 朋友信之하며 少者懷之니라.

[안연계로시러니 자왈 합각언이지러라 자로왈 안거마와 의경구를 여붕우공하여 폐지이무감하나이다 안연왈 원무벌선하며 무시로하나이다 자로왈 원문자지지하나이다 자왈 기로안지하며 붕우신지하며 소자회지니라.]

[이해]

세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각기 그 인품의 차별성이 명료해진다. 공자의 완성된 인자함. 안연의 어 짐을 붙들고 놓지 않음. 자로의 어 짐에 대한 부단한 추구 등이 그 핵심적요체인데 자연스럽게 성과현의 경계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제26장

공자가 말하였다. "너무도 하구나 나는 아직까지 자기의 허물을 보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원문]

子曰 已矣乎라 吾未見能見其過하고 而內自松者也러라.

[자왈 이의호라 오미견능견기과하고 이내자송자야러라.]

[이해]자기의 과오를 거울삼아 스스로를 반성해서 잘못을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자의 탄식은 이미 지나칠 만큼 세상에 기본 도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뜻이다.

제27장

공자가 말하였다. "열 집쯤 사는 작은 고을이라도 반드시 나와 같은 정도의 성실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나처럼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원문]

子曰 十室之邑에 必有忠信이 如丘者焉이러니와 不如丘之好學也리라.

[자왈 십실지읍에 필유충신이 여구자언이러니와 불여구지호학야리라.]

[이해]

학문이 지극한데 이르면 성인도 될 수 있으나 배우지 않고서는 한갓 필부를 면키 어려움을 지적한 말이다.

특기별고 〈55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7〉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의열단의 창립 단원들은 대부분 경상남·북도 출신으로 길림성에서 독립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권준 장군은 13인의 의열단의 창립단원으로 이들 인사들은 대부분 3·1만세독립운동을 주도했다가 일경의 체포를 피해 만주로 망명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급진 노선을 지향했던 의열단은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지역에 조직된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미온적이고 온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진적 폭력투쟁을 내세웠다.

암살과 일제 기관에 대한 직접 타격을 통해 민중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뇌관 구실을 하였다. 작지만 강고한 결사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중심인물들을 암살하고 왜적의 중심 기관들을 파괴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혁명역량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자는 것이었다.

의열단은 구체적으로 1920년 본부를 북경(北京)으로 옮긴 의열단은 상해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던 한국인들의 재정적·인적 도움을 받았다. 1920년 6월 제1차 암살·파괴 행동에 필요한 폭탄과 권총을 중국에서 밀양으로 운반했으나, 도중에 황상규·한봉근·윤세주 등이 일제 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그 해 9월 14일, 박재혁 (朴載赫)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서장을 폭사시킨데 이어, 그 해 같은 해 11월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투탄의거', 1921년 9월 김익상(金益相)의 '조선총독부투탄의거', 1922년 3월 오성륜(吳成崙)·김익상·이종암 의사들의 '상해황포탄저격의거' 등의 격렬한 암살·파괴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론)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데 대하여 이를 반대하고 적극 비판하고 탄핵한 신채호 등이 임정 불신임, 국민대표회의 소집운동을 제창하자 이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1922년 국민대표회의 세력이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자, 이들을 기관만능주의로 비판하고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의열단 단장인 의백(義伯) 김원봉(金元鳳, 1898~1958, 호는 약산若山)은 1923년 북경을 방문하여 당시 임시정부의 외교우선론에 반대하고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던 단재 신채호선생을 만나 의열단의 정신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의열단선언 즉, 앞서 밝힌 「조선혁명선언문」이었다. 이 선언에서 신채호는 독립투쟁방법으로 이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 등을 모두 부차적이라고 보았으며, 무장투쟁을 최우선하는 의열단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1924년 1월 김지섭(金祉燮) 의사의 '도쿄 니주바시(東京二重橋)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가 있었고 1925년 10월 이종암 등의 '경북 의열단사건'이 있었다.

1926년 1월 앞서 밝힌 대로, 권준 장군과 김원봉 등 단원 13명은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학하여 민족해방운동에서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였다. 군사이론 및 실전 등을 학습하고 같은 해 10월에 졸업했다. 그동안 김원봉·김성숙·장지락·권준 장군 등은 황포군관학교·중산대학(中山大學) 졸업생들을 의열단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100 여명이 넘는 지원자들을 엄중 심사하여 단원에 가입 시켰다. 그 해 12월 폭탄을 식산은행(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다)에 던진 것이 불발되자, 조선인 의 고혈을 빨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철도회사를 찾아가 권총을 난사, 일인들을 사살한 후 추격하는 일경에 맞서다 지녔던 총으로 3발을 자신의 몸에 쏘아 자결한 나석주 의사는 이미 23세 때 북간도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의열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다.

1926년에 의열단 본부의 지령에 따라 무한한국청년회(武漢韓國靑年會)가 결성되었을 때 책임 비서는 권준 장군으로 서무부도 함께 일을 맡았다. 그 무렵 권준 장군은 중국 국민혁명군 무창의 제6군 부영장으로 있었다. 겨울 총회를 열어 혁명정당을 세워 운동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열단을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으로 확대·개편했다. 민족혁명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광주(廣州)에 두고 활동했으나, 1927년 중국의 국공(國共)분열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유명무실해져 의열단으로 환원되었다. 다음 해 10월 상하이에서 제3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제국주의타도'·'조선독립만세'·'전민족적 혁명적 통일전선'·'자치운동타도'의 4대 슬로건과 20대 강령을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유일당 운동 대신 국내의 광범한 노농대중에 기반한 조직적 투쟁을 주로 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열로 좌파단원들은 중국공산당을 따라 광동(廣東) 봉기에 참가했고, 김원봉 이하 소수단원들은 다시 북경으로 본부를 옮겼다.

1932년 10월 국민당의 도움으로 남경(南京)에 조선정치군사간부혁명학교를 개교하여 민족혁명의 간부 양성에 주력했다. 1933년 6월 제7차 대표회의에서 노농혁명과 무장투쟁 등의 내용이 첨가된 개정강령을 채택하고 간부학교 졸업생 이육사(본명 : 이원록)·노석성 등을 국내에 파견했으나 일경에 모두 체포 되었다.

1935년 7월 5일 조선혁명당·의열단·신한독립당·한국독립당·재미대한독립당·뉴욕대한민단·미주국민회·하와이국민회·국민동지회 등 민족주의 단체가 모여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이 출범됨으로써 참가 단체들의 해소가 진행되고 의열단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省心篇(省心篇 繼續)

●太公이 曰(태공이 왈) 凡人(범인)은 不可逆相(불가역상)이요 海水(해수)는 不可斗量(불가두량)이니라.

해설: 태공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앞질러 일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닷물은 가히 말(斗)로 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結怨於人(결원어인)은 謂之種禍(위지종화)요 捨善不爲(사선불위)는 謂之自賊(위지자적)이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곧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요 선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若聽一面說(약청일면설)이면 便見相離別(편견상이별)이니라.

해설: "만약 한편 말만 들으면 머지않아 친한 사이가 멀어짐을 볼 것이니라."

●飽煖(포난)엔 思淫慾(사음욕)하고 飢寒(기한)엔 發道心(발도심)이니라.

해설: "배부르고 따뜻한 곳에서 호강하게 살면 음욕이 생기고, 굶주리고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살면 바른 마음이 싹트느니라."

●疏廣이이 曰(소광이 왈) 賢人多財則損其志(현인다재즉손기지)하고 愚人多財則益其過(우인다재즉익기과)니라.

해설: 소광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지조(志操)를 잃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이 더해지느니라."

참고: 逆..거스를 역, 量..헤아릴 량(양), 怨..원망할 원, 謂..이를 위, 種..종자 종, 심을 종, 捨..놓을 사, 버릴 사, 若..같을 약, 聽..들을 청, 說..말씀 설 (즐거울 열, 달랠 세), 離..떠날 리(이), 飽..배부를 포, 煖..따뜻할 난, 飢..주릴 기,배고플 기, 淫..음란할 음, 發..필 발, 財..재물 재, 志..뜻 지,

●소광(疏廣)은 전한(前漢) 선제(宣帝) 때의 사람. 태자의 태부(太傅)로 있다가 나이가 많아 사퇴하게 되니 선제와 태자가 많은 재물(財物)을 내렸다. 그는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옛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재물을 두었다가 자손들에게 남겨주기를 권하자 그는 바로"손기지(損其志)⇒그 지조를 잃는것. 익기과(益其過)⇒그 허물을 더한다. 란 말로써 대답 하였다고 한다."

결원(結怨)⇒원수를 맺는 것, 종화(種禍)⇒재앙의 씨앗을 심는 것. 사선(捨善)⇒선을 버리는 것, 불위(不爲)⇒하지 않는 것, 자적(自賊)⇒스스로를 해치는 것.

淫慾⇒음탕한 욕심, 道心⇒도덕의 마음, 즉 바른 마음을 말 한다.

●人貧智短(인빈지단)하고 福至心靈(복지심령)이니라.

해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가장 행복해 지면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不經一事(불경일사)면 不長一智(불장일지)니라.

해설: 한가지 일을 겪지 아니하면 한가지의 지혜가 자라지 아니 하느니라.

●是非終日有(시비종일유)라도 不聽自然無(불청자연무)니라.

해설: 종일토록 시비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來說是非者(내설시비자)는 便是是非人(편시시비인)이니라.

해설: 찾아와서 시비(是非)를 말하는 자는 이것이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擊壤詩에 云(격양시에 운) 平生에 不作皺眉事(평생에 부작추미사)하면 世上(세상)에 應無切齒人(응무절치인)이니 大名(대명)은 豈有鐫頑石(기유전완석)가 路上行人(노상행인)이 口勝碑(구승비)니라.

해설: (격양시)에 이르기를,"평생에 눈을 찌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뜻없는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나으리라."고 하셨다.

●有麝自然香(유사자연향)이니 何必當風立(하필당풍입)고.

해설: 사향(麝香)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향기를 풍기는데 어찌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만 향기가 나겠는가

●有福莫享盡(유복막향진)하라 福盡身貧窮(복진신빈궁)이요 有勢莫使盡(유세막사진)하라 勢塵寃相逢(세진원상봉)이니라. 福分常自惜(복혜상자석)하고 勢分常自恭(세혜상자공)하라. 人生驕與侈(인생교여치)는 有始多無終(유시다무종)이니라.

해설:"복이 있다 해도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 하면 몸이 궁색해 질 것이요, 권세가 있다 해도 함부로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되느니라. 복이 있으면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으면 항상 스스로 겸손 하라. 사람에 있어서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흔히 나중은 없는 것이니라."

참고: 智..지혜지, 短..짧을 단, 靈..신령 령, 經..지날 경, 是..이 시, 非..그를 비, 便..편할 편, 皺..주름살 추, 眉..눈섭 미, 鐫..새길 전, 頑..완만할 완, 勝..이길 승, 碑..비석 비, 麝..사향노루 사, 香..향기 향, 享..누릴 향, 寃..원통할 원, 逢..만날 봉, 驕..교만할 교, 貧..가난할 빈, 窮..다할 궁, 恭..공경할 공, 惜..아낄 석, 勢..권세 세, 盡..다할 진, 常..항상 상, 떠떳할 상, 侈..사치할 치, 始..비롯할 시, 終..마지막 종.

●지단(智短)⇒지혜가 짧아 짐,심령(心靈)⇒마음이 밝아지는 것, (靈)은 신령하다는 뜻, 편시(便是)⇒ 이것이 바로, 추미(皺眉)⇒눈을 찌푸리는 뜻, 절치(切齒)⇒이를 가는 것, 응(應)⇒마땅히, 완석(頑石)⇒미련한 돌, 뜻없는 돌, 전(鐫)⇒새기다, 구승비(口勝碑)⇒입이 비석을 이긴다, 막향진(莫享盡)⇒다 누리지 마라, 막사진(莫使盡)⇒다 부리지 말라, 원상봉(寃相逢)⇒원수와 서로 만난다.자석(自惜)⇒스스로 아끼는 것, 교여치(驕與侈)⇒교만과 사치, 다무종(多無終)⇒끝이 없는 것이 많다, 결코 나중이 없는 것을 말한다.